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6. 9. 3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15:7)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이곳 소식을 드립니다.

♣ 루마니아 아이들의 소중한 여름방학

여름철 계획한대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방학(6월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3개월)을 하여 두 번의 수련회를 펠디와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외부에서의 수련회는 재정적인 소요가 많기에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엔 쉽지 않아 교회내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협력교회의 청년들도 섬김으로 참석하여 많은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과 브라쇼브 근처의 산에 올라 산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믿음과 비전을 새롭게 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소년들이지만 깊은 개인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중 믿음으로 세워진 청소년들과 블러데니 교회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마을을 돌며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라치엔 방학기간 늦게 까지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어 집들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깨워 주기도 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특별히 '복음'을 주제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라치엔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어 저와 디누 전도사 그리고 펠디와라 교회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해왔는데 아라치 교회를 섬기는 한 교사가 수개월동안 함께 섬겨오고 있고, 이제는 아라치 교회에서 교사를 모집하여 함께 사역한 후에 이들에게 이양할 계획입니다.

블러데니 교회의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 여름방학동안 디누전도사, 펠디와라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방문하여 길거리 전도와 아이들을 방문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악기등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쉼을 갖다 다시 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에게 전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의 전도활동

펠디와라 교회는 8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고, 여름철 길거리에서 그리고 가정들을 방문하며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십여회 이상 집을 방문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었던 한 여자가 갑자기 소천하였는데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였지만 종교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은 루마니아인의 공통된 이야기 것 같습니다.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적지만, 제한이나 방해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가 가장 큰 기도제목입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파네전도사와 일군들이 매월 전도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론 집시족 복음성가 가수와 주변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삼일간의 초청집회를 갖곤 하는데 전도가 회귀해져가는 루마니아 교회 상황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기도로 인도함 받는 공동체 되길

함께 모이는 지도자들, 여성 사역자들이 기도에 힘쓰길 소망하며, 8월 첫째주 토요일엔 펠디와라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브라쇼브주 목회자와 장로들이 펠디와라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명자선교사가 인도하는 여성 사역자 기도회는 센타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여성 사역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복음전도자의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기도제목

1. 펠디와라 교회와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2.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교회가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브라쇼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여성 사역자들이 기도로 잘 무장하도록
4. 블러데니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행하길 소망하며!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